



여름·겨울 재난대책 전국 유일 '최우수'

전북자치도, 시군과 함께
총 9억5000만원 특고세
행안부 재난대책 평가서
재난대응 역량 인정받아
순창·김제·군산 등
도내 시군도 '우수' 성과

전북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난 대책 평가'에서 겨울철과 여름철 모두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와 도내 시군이 함께 총 9억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등 체계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2024~2025년 겨울철 대설 대비와 2025년 여름철 집중호우 대응을 대상으로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전북자치도는 여름철과 겨울철 모두에서 최우수에 오른 유일한 지자체로 선정됐다. 특히 4년 연속 기관표창으로 자연재난으로부터 최고로 안전한 지역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평가 결과 전북은 도 단위로 총 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고, 시군 평가에서도 순창군이 겨울철 최우수 기관으로 1억5,000만원, 김제시가 장려로 5,000만원을 확보했다. 여름철에는 군산시가 장려 기관으로 선정돼 1억



전북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난 대책 평가'에서 겨울과 여름철 모두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김관영 도지사가 지난 9월 군산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5,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도와 시군이 함께 총 9억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

전북자치도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자연재난의 대형화·복합화에 대비한 과학적 대응체계를 꾸준히 구축해왔다. AI기반 도시침수 대응 시스템을 도입하고, 5단계 재난대응체계와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하는 등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했다. 여기에 부단체장 주관 대책회의를 통해 시군 간 협업체계를 가동한 점도 높이 평가됐다.

겨울철에는 폭설 예보에 따라 비닐

하우스, 도로 등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도로통제 및 대피 조치를 병행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특히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 취약계층에 대한 전수조사와 맞춤형 관리체계를 운영해 주민 보호에도 힘썼다.

여름철에는 하상도로, 둔치주차장, 산사태 위험지역 등 생활권 내 재해위험지역을 집중 관리했다. 호우특보 시 단계별 통제를 실시하고, 저수지 및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했으며, 주민 대피 및 생활품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안전관리로 주민 체감도를 높였다.

전북자치도는 향후에도 겨울철 대책 기간(11월 15일~3월 15일) 동안 신속한 상황대응과 철저한 현장관리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반 점검체계와 고위험군 보호체계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성과는 도민의 참여와 민·관·군이 함께 이룬 결과"라며 "앞으로도 한 발 앞선 재난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9일 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회를 찾은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담회를 갖고, 사업회 관계자들과 화이팅을 하고 있다.

“도로개선사업 등 해결 최선”

민주 이원택 의원, 화물자동차운송사업회와 간담회 애로사항 청취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 김제, 부안을)이 전북자치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회, 대한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 체육인 및 직능단체와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생행보에 돌입했다.

특히 이 의원은 9일 오후 전주시 전미동 전북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회를 방문해 양봉식 이사장 및 10여명의 도내 화물운수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회 양봉식 이사장은 현재 자리한 협회건물이 편도 2차선 주변에 자리잡아 민원인을 비롯한 직원들의 자동차 통행을 하는데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위험에도 항상 노출돼 도로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기특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화물협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충분히 인식

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에서도 고분분투하고 있는 양봉식 이사장을 비롯한 화물업계의 노고가 많은 만큼 도로개선사업 등 건의한 내용을 좀 더 중점 검토해 이를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새만금 시대가 도래하면 수많은 기업들이 유치돼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물동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화물자동차운송협회도 이에 편승 경제사정이 매우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화물협회도 이에 따른 철저한 준비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전북은 향후 도정 4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화물자동차운송협회도 시대 흐름에 맞춰 모든 일을 능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지금이 어렵다고 절대 좌절하지 말고 이를 적극 극복해 새만금 지역을 새로운 동력의 모태로 만들어가는데 화물업계에서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 하계올림픽 홍보 우수 활동자를 찾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 올림픽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한 서포터즈를 격려하고자 ‘전주 올림픽 유치 홍보 서포터즈 우수 활동자’를 선발해 시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우수 활동자 선발은 서포터즈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홍보 활동을 장려하고, 향후 전주 올림픽 유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자치도, 20일까지 신청접수... 29일 시상

우수 활동자 총 10명 선정... 상장·기념품 수여

우수 활동 서포터즈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서포터즈는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에 게시된 ‘우수 활동 서포터즈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DONGAM20@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평가는 도 공식 채널에 게시된 올림픽 관련 게시물 참여도(좋아요·댓글·공유 등), 응원 게시물 작성 실적, ‘Let's Move’ 캠페인 등 각종 이벤트 참여도, 자체 콘텐츠 제작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진행된다.

선정 인원은 10명 내외이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홍보 서포터즈 위촉장, 기념품 등이 수여된다. 선정 결과는 23일 개별 안내되며, 시상식은 29일 개최될 예정이다.

유희숙 전북특별자치도 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전주 올림픽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에 참여한 서포터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우수 활동자 선발이 서포터즈 활동 활성화와 유치 분위기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26일 전주시 ‘평화통일 사회적대화’ 개최

전주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평화통일 대화의 장이 마련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지협의회(회장 이강실)는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전주시 완산구 바람쐬는길 120에 위치한 차명자산 평화의전당 유향검술에서 ‘평화통일 사회적대화’를 개최하고, 시민 200명을 초청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회적 대화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동등한 대화 민주주의 방식으로 평화통일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취지다.

행사에서는 소그룹 토론과 월드카페 방식이 적용돼 참가자 전원이 자유롭게 발언하며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구성된다. 토론에서 도출된 다양한 시민 의견은 향후 평화정책 제안 과정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하늘 꽃
온산을 하얗게 잠재우면
산산이 흩어지는 입김
설렘 가득한 겨울

가자, 무주로!
눈꽃 찬란한
자연특별시 무주의 겨울로...

QR코드를 찍으시면
자연특별시 대표관광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행문의 1899-8687